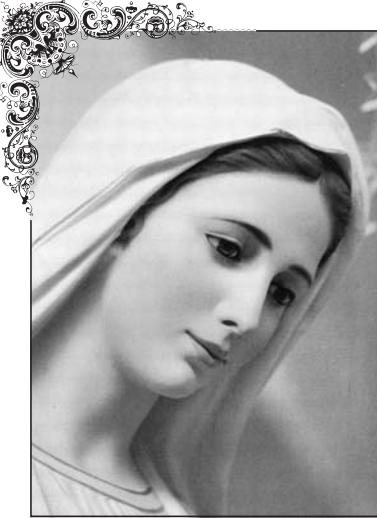




The Queen of Peace

평화의 모후

2009, October / 제 52 호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뻐하며 끈기 있게 너희의 회개를 위해 힘써라. 내가 너희 모두를 지극
히 사랑하는 내 아드님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너희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내 터 없는 성심에 봉헌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그분의 성심 안에서 기쁨
을 찾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영원으로 인도하기 위
해 너희와 함께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서 고맙다."

2009년 9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마리아, 자비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소서
인류가 선의 길을 잃지 않고
죄의식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소서

자비로 가득하신 하느님
그분께 대한 희망안에
자라게 하소서
하느님이 마련해 놓으신
좋은 일들을 이루시어
저희의 일생이
그 분의 영광을 위한
찬미가 되게 하소서 !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박창득몬시뇰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세요.
 -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엘파소 한인 공동체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사제 티어니 신부님을 위하여, 모든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위하여 ...
 - 성모님, 오랜 세월 치매로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기억해주소서.
 - ○○○의 알콜중독의 치유와, ○○○의 임파선 암의 치유를 위하여...
 - ○○○의 마약 중독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친족 가족의 상처 치유와 믿음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 어머니 박마리아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드립니다.
 -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 박문수바오로 믿음으로 성가정 이루게 착한 사람 만나길 기도합니다.
 -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하여
 - 예수님, 죄인들의 회개와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 선교회의 어머니마을과 모든 봉사자들,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두 무릎을 수술하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 소피아 자매 새로 개업한 두곳의 식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청합니다.
 - 겸손하고 순종하고 책임감있는 성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은 자 되기 바랍니다.
 - 저의 가정, 딸과 아들의 가정, 친정 모두에게 깊은 신앙심과 건강,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 가족들에게 영육간의 은총과 평화를 주시며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소서.
 -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을 돌보아 주시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 죄인들의 회개와 냉담증인 교우들이 하루 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 성모님, 딸을 하루빨리 엄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성모님, 남편 루까의 영육간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 생명책에서 지워진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저의 부모님이신 백알베르토, 이아가다의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소서.
 - 남동생이 바른길을 찾고 부모님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기도합니다.
 - 주님, 가족의 건강과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가정을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큰 아들 사업의 성공과 막내아들에게 홀륭한 베플감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모님, 크리스티나가 백납증 치료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진도미니카 조상님들, 연옥영혼중에 가장 불쌍한 영혼들, 불의의 사고로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인자하신 성모님을 통하여서 하느님 자비하심을 감히 청원합니다.
 - 성모님, 모든 이들이 선한 마음이 되어 부드러운 말로써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정운호군의 영육간의 건강과 주님의 축복, 보호해주시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손녀딸 제니퍼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데 성모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모님, 저의 가정에 아기를 주시고 남편이 모든 이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성모님, 파티마 순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안토니오가 주님의 일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모님의 사랑과 지혜로 이끌어 주소서.
 - 남편이 물질과 육욕, 세속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진실된 회개와 성령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
-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선교회에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목자의 소리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1)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회칙-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교회 현장, 11항)이라고 강조한 성체성사의 핵심을 깊이 성찰하여, 공의회 이후의 문화적 급변과 다양화, 새로운 교회 일치 운동 등으로 나타난 현대의 상황 속에서 성체성사의 참된 본질과 올바른 실현의 의미와 그에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하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이다. 교회의 정체성과 기원, 사도 전래성에서 나오는 성체성사의 유일한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강조하며, 거룩한 성체성사의 은총과 그 유효성과 관련하여 신자들의 의식이 심화되기를 촉구한다.

성체성사와 교회의 관계에 관하여
주교와 사제, 부제, 남녀 봉헌 생활자와
모든 평신도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Ecclesia de Eucharistia vivit). 이러한 진리는 일상적인 신앙 경험을 표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비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하신 약속의 항구한 성취를 교회는 다

양한 방식으로 기쁘게 체험하지만, 특히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이러한 현존을 매우 강렬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새 계약의 백성인 교회가 천상 본향을 향한 순례 여정을 시작한 오순절 이후, 이 거룩한 성사는 교회가 지내 온 세월을 끊임없이 기념하며, 그 시간들을 확고한 희망으로 채워 주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체성사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 1) 이라고 올바르게 선포하였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교회의 모든 영적 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의 '파스카'이시며, 살아 있는 빵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주는 당신 살로써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2) 따라서 교회의 눈길은 언제나 제대의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향하며, 그 안에서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온전히 드러남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파스카 신비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파스카 신비의 뛰어난 성사인 성체성사는 교회 생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는 이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사도 2,42).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은

성체성사는 신앙의 신비이며 동시에 빛의 신비입니다.

성찬례를 뜻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교회의 이러한 첫 모습을 끊임없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파스카 성삼일로, 곧 성 목요일 저녁의 사건들, 최후의 만찬과 그 이후의 일들로 되돌아갑니다. 성체성사의 제정은 계제마니 동산의 고뇌를 시작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성사적으로 앞당깁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다락방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시어 올리브 동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지금도 그 동산에는 매우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나무들은 그날 그리스도께서 고통 중에 기도하시며 "핏방울 같은 땀이 뚝뚝 흘러 땅에 떨어졌을 때"(루가 22,44)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전에 성체성사를 통하여 교회에 구원의 음료로 주신 그 피가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피 흘림은 해골산에서 우리 구원의 도구가 됨으로써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셔서 단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히브 9,11-12).

우리 구원의 시간. 예수님이께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당신의 '시간'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견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려 온 것이다"(요한 12,27). 예수님이께서는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해 주기



매주고리예 야고보 본당의 야외미사

를 바라셨으나, 외로움과 벼랑받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마태 26,40-41). 오직 요한만이 성모님과 충실한 여인들 곁에서 십자가 아래 남아 있었습니다. 계제마니에서 겪으신 고통은 성금요일의 십자가가 고통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시간, 세상 구원의 시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성찬례가 거행될 때마다, 예수님의 '시간', 곧 그분의 십자가와 현양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듯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함께 거룩한 미사를 거행하는 모든 사제는 마음으로 그 곳, 그 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보라, 십자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는 관상과 선포의 말로 울려 퍼집니다. 교회는 성금요일 오후에 모든 이에게 이러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부활 시기 동안 이렇게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도다. 알렐루야."

저는 제가 대회년의 유산으로 교회에 남긴 교서 「새 천년기」 (Novo Millennio Ineunte)와 성모님께 관한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Rosarium Virginis Mariae)에 이어 이 회칙을 발표함으로써 성체성사의 이러한 '경이로움'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제삼천년기가 시작될 때 제가 교회에 새 복음화의 열정으로 역사

의 바다에 깊이 뛰어들도록 권고하면서 교회 앞에 제시한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께서 여러 현존 양식으로, 특히 당신의 몸과 피의 살아 있는 성사로써 당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이끌어 냅니다. 교회는 그분께 양식을 얻고 그분으로 빛을 얻습니다. 성체성사는 신앙의 신비이며 동시에 "빛의 신비"



성찬례는 하늘과 땅을 결합시킵니다.

3)입니다. 교회가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어느 면에서 신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가 겪은 일을 다시 체험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루가 24,31).

성체성사를 생각할 때, 또 사제와 주교로서,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지낸 삶을 되돌아볼 때, 저는 자연스레 제가 성찬례를 거행할 수 있었던 여러 기회와 장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본당 사목을 맡은 니에고비치의 성당, 크라쿠프의 성 플로리아노 대성당, 바벨 주교좌 성당, 성 베드로 대성전을 비롯한 로마와 세계 곳곳의 여러 대성전과 성당들이 기억납니다. 산길, 호숫가, 바닷가 등에 지어진 경당에서 거룩한 미사를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동장과 도시의 광장에 세운 제대에서도 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거행한 성찬례를 통하여 저는 성체성사의 보편적인 특성, 다시 말해 우주적인 특성을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주적입니다! 성찬례는 시골 성당의 초라한 제대에서 거행될 때에도 어떤 면에서는 늘 세상의 제대에서 거행되기 때문입니다. 성찬례는 하늘과 땅을 결합시킵니다. 성찬례는 모든 피조물을 끌어안고 그 속에 충만히 스며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단 한 번의 승고한 찬양 행위로, 모든 피조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분께 되돌려 드리고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분께서는십자가의 성혈로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며, 그리하여 모든 구원받은 피조물을 창조주이신 아버지께 되돌려 드리십니다. 그분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사제직을 통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성체성사 안에서 성취되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의 손에서 비롯된 세상이 이제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아 하느님께 되돌려집니다.

성체성사의 신비를 선포하는 교도권의 노력에 발맞추어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내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공의회가 시작한 전례 쇄신은 신자들이 제대의 거룩한 희생 제사에 더욱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분명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많은 곳에서 성체 조배는 일상의 중요한 신심 실천이 되고 또 성덕의 무한한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하는 성체 거동에 신자들이 경건하게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며, 이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해마다 큰 기쁨을 안겨 줍니다. 성체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드러내는 다른 긍정적인 징표들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빛과 나란히 그림자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체 조배 관습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여러 지역에서는 이 놀라운 성사에 관한 가톨릭 교리와 건전한 신앙에 혼란이 생기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극단적으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찬례가 지난 희생 제사의 의미를 없애 버리고 단순히 형제애의 잔치로 거행하기도 합니다. 또 사도직 계승에 바탕을 둔 직무 사제직의 필요성이 때때로 흐려지고, 성찬례의 성사적 본질이 일종의 선포 형식이라는 단순 효과로 축소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여기 저기에서, 비록 의도는 좋지만 교회의 신앙 표현 원리에 어긋나는 성찬 관습에 빠져 드는 초교파적 행위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깊은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성체성사는 너무도 큰 은총이어서 모호성이나 평가 절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회칙이, 용인할 수 없는 교리와 관습의 어두운 구름을 걷어 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성체성사가 그 찬란한 신비로 끊임 없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문헌으로서 '사제의 해'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www.cbck.or.kr의 교황 문헌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개인적 회개를 위해 힘써라…

신경남 스테파노

카푸친 작은 형제회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회개하라고 또 다시 너희를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의 거룩함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너희의 개인적 회개를 위해 힘써라. 그러면 너희는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 사랑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모든 마음이 갈망하고 있는 영원에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9년 8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회개하라고 또 다시 너희를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의 거룩함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성모님께서는 이번 달 메시지를 통해서 또 다시 우리를 회개로 부르십니다. 아직 우리의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성화, 즉 거룩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회개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느님께로 자신의 모든 몸과 마음, 정신과 영혼 모두를 들어 높이고, 거룩하신 그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의 거룩함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거룩함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모습과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즉, 우리의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발산되어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나 멸망할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 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2코린 2,15)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으로 모든 이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거룩함으로 모든 사람이 회개와 거룩함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모님, 저의 손을 잡고 영원하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소서

록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의 향내고, 구원 받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향내입니다." (2코린 2,16)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도록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거룩하게 되라고 우리를 또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고, 적당한 것으로는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감화를 줄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 더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너희의 개인적 회개를 위해 힘써라. 그러면 너희는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 사랑의 표징이 될 것이다: 기도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는 우리 모습 안에 하느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 자신이 하느님을 닮은 사람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스러운 모습까지도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마음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회개 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바치는 기도, 즉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기도 없는 활동이라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지치게 만들며 활동주의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느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고, 이웃에게로 향하게 만듭니다. 물이 차면 저절로 넘치듯이, 우리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 저절로 이웃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너희의 개인적 회개를 위해 힘써라. 그러면 너희는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 사랑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모든 마음이 갈망하고 있는 영원에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성모님께서는 자주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성모님의 현존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집과 각 방, 차, 혹은 직장 책상에 성모님상을 모시거나 그분의 성화 혹은 상본을 비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메주고리에 성모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의 성모님을 우리가 쓰는 컴퓨터 화면에 깔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걸어놓거나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 사진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존재를 늘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듯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성모님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와 같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사 중에 사제가 여러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제의 기도처럼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은 지상에서의 삶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모든 마음이 갈망하고 있는 영원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를 온전히 의탁하도록 어머니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모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를 영원하신 주님께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도록 간청합시다.

예수님,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희보다 앞서간 성인들처럼 저희도 거룩하게 살아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들도 거룩함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성모님, 다른 이들의 결점이나 죄를 보기전에 앞서서 저희 자신의 것을 먼저 들여다 보고, 저희의 개인적 회개를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당신의 전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모님, 제 손을 당신께 드리오니 저의 손을 잡고 저를 영원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M**



성모님의 메시지 묵상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뻐하며 끈기 있게 너희의 회개를 위해 힘써라. 내가 너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는 내 아드님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너희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그분의 성심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영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너희와 함께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9년 9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뻐하며 끈기 있게 너희의 회개를 위해 힘써라: 지난 달 메시지에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너희의 개인적인 회개를 위해 힘써라."라고 말씀하신 성모님께서는 이번 달 메시지에서도 다시금 우리 자신의 회개를 위해 힘쓰도록 독려하심으로써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반복의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나름대로 우리 개인의 회개를 위해 열심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회개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지난 달 메시지에서 우리 자신의 회개를 위해 가장 본질적인 조건인 기도에 대해 언급하셨다면, 이번 달 메시지에서는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끈기'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며 끈기 있게 너희의 회개를 위해 힘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

금 당장 우리가 완전한 회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개의 여정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부분이 있고, 또 회개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과 모습을 지켜보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은 우리 자신과 예수님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는 팔을 벌리고 아기에게 자신들을 향해 오도록 손짓을 합니다. 아기는 뒤풍거리며 부모를 향해 걸어가려고 애씁니다. 늘 기어 다니기만 하던 아기가 서서 한 발 두 발 걸음을 떼며 걸어가는 모습은 아기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비록 뒤풍거리며 쓰러질 듯하면서도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아기의 모습은 부모의 눈에는 참으로 대견스러워 보이고, 여간 기쁜 일이 아닙니다. 아기가 걸어오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 아기를 야단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 아기의 다리에 힘이 부족하고, 균형 감각이 덜 발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개의 궁극적 지향점은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의 나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실망해서는 안됩니다. 완전하지는 못할망정 어느 만큼이라도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분을 향한 회개의

어머니, 오직 예수님만을 참된 구세주로 모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주소서. 아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스런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모님과 예수님을 떠올리며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 9,12-13)

내가 너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는 내 아드님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너희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그분의 성심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될 것이다: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8년 3개월 동안 성모님의 발현이 매일 계속되고 있다면, 오히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왜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예 발현목격증인들을 통해 그처럼 오랫동안 이 땅과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시어 메시지를 주시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 모두가 완전히 회개하고,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모셔 들였다면, 성모님은 굳이 매일 발현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니 온 인류를 우리의 참된 평화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땅을 찾아 오고 계십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사명은 우리 모두를 구세주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당신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은 예수님의 성심과 온전히 하나된 마음이

고, 당신의 노래 '마니피캇'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 사랑과 당신 자녀들인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어머니께 의탁하게 되고,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성심과 하나된 예수님의 성심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명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 11,28-30)

나는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영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너희와 함께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얼마 전에는 스와인 플루, 지금은 신종 플루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운전 중 라디오를 통해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감기 증상이 있다면, 꼭 입을 가린 채 기침을 하고, 손은 항상 깨끗이 씻고, 될 수 있으면 외부와 접촉을 삼가하고 집에 머물라.'는 메시지를 정규 방송 중간 중간 반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기에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메주고리예 발현 초기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평화의 모후'라고 소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느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 왔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평화, 평화, 오직 평화만이 있기를!"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분을 찾지 않으며 평화를 잊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모후 선교회 주관 2010년 성지순례 안내

2010년 3월 19일 – 27일 메주고리예 – 드브로브닉 순례 (8박9일)

2010년 5월 19일 – 31일 메주고리예 – 드브로브닉 – 루르드, 파리 순례 (12박 13일)

지도신부 : 백요셉마리아 신부 (뉴튼 성바오로 분도수도회)

2010년 7월 26일 – 8월 8일 "International Youth Festival" (13박14일) 메주고리예, 드브로브닉, 로마, 아씨시

지도신부 : 터스캔 조셉 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문의처 : 610-366-9612 / E-mail : qpmm.org@gmail.com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주셨고,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가르침은 별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컨대, 성모님 메시지의 핵심 주제들인 '기도, 회개, 신앙, 보속 그리고 평화'는 우리에게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모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내용과 주제를 가르쳐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모든 관심이 하느님을 완전히 떠나 있어 머리로 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참된 교사로 성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 곧 성모님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모님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왜 성모님을 이 땅에 교사로 보내고 계시는지 묵상해 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요한 14,23-26)

예수님, 제가 기쁨과 끈기를 잊지 않고 매일 매일 회개 할 수 있도록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저를 이끌어 주시는 당신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어머니 마리아의 터 없으신 성심을 통하여 봉헌하오니 당신 사랑의 성심 안에서 모두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저의 참된 기쁨은 오직 당신에게서만 오고, 저의 모든 슬픔은 당신의 위로와 능력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제 삶 모두를 당신께 봉헌하오니 받아주소서.

성모님, 당신은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당신 몸 안에 모셔들이고, 몸과 마음 모두 늘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써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성모님, 당신은 시메온의 예언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당신의 아드님, 당신의 하느님을 뵈오면서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듯한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저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당신의 터 없으신 성심에 봉헌합니다. 어머니, 제가 당신의 성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심 안에서만 오직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참된 구세주로 모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및 성시간

일시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7시

(목주기도 - 미사 - 성시간)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02-6374-2200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 02-2281-3236 / 010-7310-9678, 010-9922-59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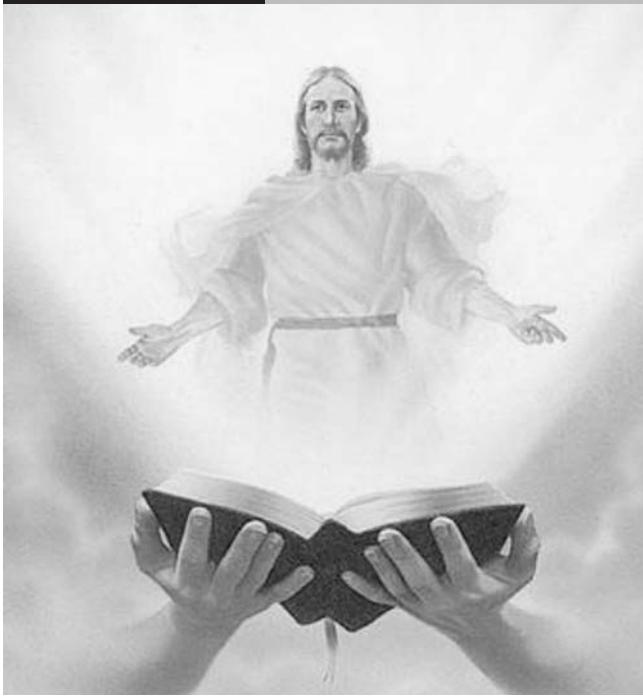
사제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 메시지의 시작 부분에서) "나는 내 사제들이 성체 안의 나와 함께 기도하고 일하기를 바란다." 고 한 말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겠느냐? 그 대답은 이렇다. 내가 '십자가의 희생 제사' 와 '거룩한 미사' 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마태 26,39) 그러니 너는 잊지 말아라. (많은 사제들이 잊고 있지만) 미사 성제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실제로 새롭게 하는 것임을! 십자가의 희생 제사에는 아버지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있고 그것은 나의 뜻을 온전히 없애 버리는 것과 일치된 기도이다. 여기에는 또한 무한한 '사랑'과 '고난'으로 나 자신을 바치는 온전한 제헌이 있고, 영혼들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 있다. 이러한 제헌의 순간에 나와 하나 되어 –이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 자신도 함께 바치는 사제는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내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나와 함께 이를 행할 때만큼 사제다울 때가 없는 것이다.

이 긴요한 일치, 이 깊고 열매 풍성한 일치가 없이 봉헌되는 미사 성제가 얼마나 많이 행해지는지 모른다! 사제는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이 예식을 하는 동안, 하느님

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 이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 하나 되어 그 자신의 위치를 성부께 바치는 효과적인 봉헌으로 스스로를 없이 하고, 내가 끊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혼들을 위해서 산 제물이 되기를 기꺼이 수락해야 하는 때이니 말이다. 요컨대, 사제는 거룩한 미사 중에 나와 함께 실제로 아버지께 자기를 바침으로써 아버지께서 그를 영혼들에게 내어 주시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활동에 앞서 사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과 초자연적인 것을 허비하게 되고, 무슨 활동을 하든지 그 근본에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많은, 참으로 많은 미사들이 어떻게 봉헌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면 너는 너무 놀라서 죽을 지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나는 내 사제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내가 하듯이 기도하고 일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할 때에만 비로소 그들 자신과 그들의 형제들을 위해서 진정한 영적 죄신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975년 5월 5일)

각 사제는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언을 들으면 많은 사제들은 의외라고 여기고, 혹은 깜짝 놀라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여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의 다양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각 사제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은 확고한 것이다. 아들아, 나는 실제로 탁월한 '산 제물' 이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느냐? 말해 보아라. 아들아, 나야말로 하느님의 진노를 풀어 드리고 하느님의 '정의'를 보상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 없는 산 제물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사제가 "또 하나의 그리스도"(after christus)가 아니라면 그는 대관절 누구이겠느냐? 당연히 공동 구속자가 되어야 할 사제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신원은 대체 무엇이겠느냐? 게다가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산 제물이 된 나처럼 사제 스스로 산 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 구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대사제이고 동시에 제물인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으로 바치지 않았느냐? 사제가 나와 일치하여, 죄의 용서를 얻어 내기 위해서 – 이것이 바로 미사 성제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거니와 –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기를 바치려는 단호하고 효과적인 의지로 거룩한 희생 제사를 바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제는 사제직의 본질을 지워 버리고, 사제직 고유의 특성을 흉하게 변질시키며, 사제직의 목적을 훼손하는 셈이 된다.....

아들아, 그런데 목자와 교육자들이 사제직에 "부름 받은" 영혼들에게 사제직의 특성과 본질과 목적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수 없었다면, 그들은 대체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결혼하기에 이른 두 부부가 결혼의 본질과 목적도 모른다면, 얼마나 가련하고 불행한 사람들이겠느냐? 성직자가 된 사람이 사제직의 본질과 특성과 목적을 철저히

완덕과 성화의 길을 걷는 사제는 행복하다.

알고 있지 않다면, 그런 사제는 가련하고 불행하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 자신의 영혼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 섭리의 계획 안에서 그의 사제직과 결부되어 있는 수 많은 영혼들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사제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할 뿐더러, 사제직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희생 제물이 되기도 해야 한다. 이윽고 이 희생 제물의 신분을 거부하게 되면 유다처럼 '구속의 신비'에 대하여 배반자가 된다. 위대하고 숭고한 사제적 소명과 사명을 의식하면서, 땅의 먼지에서 인간이 갈망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끌어올려 주신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유순히 자신을 내맡기는 사제는 행복하다. 자신이 "선택된 그릇"이 되었음을 자각하고 스스로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시킨 다음, 이 거룩하고 거룩한 '희생 제물'과 하나 되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사탄의 명에와 그 혹독한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갈바리아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제는 행복하다. 하느님의 원수와 교회의 원수 및 그 자신의 영혼과 양심의 원수와 타협을 하거나 계약을 맺지도 않는 사제는 행복하다. 지옥의 어두운 세력과 결탁하기를 거부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레위 19,2-역주)고 하신 (하느님의) 명을 따라 완덕과 성화의 길을 걷는 사제는 행복하다. 이 성화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내 사제들에게는 분명히 아주 독특한 모양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염연한 사실이다. 다른 이들을 성화시키려면, 그 자신이 먼저 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신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느냐?

아들아, 진보와 파괴적인 발전의 이름으로, 나의 모범과 가르침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몹시 왜곡된 내용들을 신학교 교육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적 타락을 수동적으로 보아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목자들아, 너희가 그 중대한 책임을 모면할 성 싶으냐? 터무니 없는 궤변으로 하느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머지않아 너희는 너희가 막을 수 없었거나 막기를 바라지 않았던 모든 악과, 실행하지 않았던 모든 선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 죄 깊음도 해야 할 것이다.

네게 강복한다, 아들아. **M**

(1976년 11월 30일)

(가톨릭 출판사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에서 발췌)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못한다.

443. 91. 2.26. '마리아사제운동' 브라질

전국 주교 및 사제들과의 '다락방' 모임 형태의 영성수련 (피정)

이 며칠 내 '티없는 성심'은 너희가 '지속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형제애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다. (...) 너희는 브라질 전국에서 모여 왔거니와, 이 나라는 내가 무척 사랑하는 곳이다. 그러나 내 '원수'의 속임수에 갈 수록 더 빠져들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오늘 나는 이곳에서 고통받으며 생활하는 교회와 아직도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너희 조국을 내 티없는 성심의 동산에 받 아들인다. 또한 내 모든 자녀들도 티없는 내 성심에 자신을 봉헌하고 되도록 빨리 이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오기 바란다. 이는 정화기 및 대환난기에 대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피난처이니 말이다. 나는 너희 모두의 자상하고 이해심 깊은 '엄마'이다. 너희를 평화의 길, 기도의 길, 성덕의 길,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더욱 깊이 하나가 되는 길로 인도해 주고 싶다. (...) 나는 너희의 사도적 열성을 안다. 큰 어려움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날마다 지는 고통의 짐을 함께 진다.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과 비천한 이들에 대한 너희의 보살핌을, 가난과 불행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는 너희의 애씀을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본다. 하지만 나는 '엄마'로서 너희의 손을 잡고, 너희가 진리를 온전히 깨닫도록 이끌어 간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못한다. (*마태 4,4; 루가 4,와 병행구 신명 8,3) 사람은 또한 정신의 굽주림을 채우기 위해,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태 4,4; 신명 8,3) 그런데 물질적 재화에 대한 빈곤 이상으로 심각한 정신적 빈곤이 있다. 얼마나 많은 나의 자녀들이 그 정신적 속박의 명예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하느님을 부정하는 토대 위에 세워진 그릇된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자들이다. 이론적, 실제적 무신론이라는 오류가 너무도 널리 퍼져나가는 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를 등지고 이곳에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여러 종파에 가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허다한 내 자녀들의 정신적 굽주림이 더 이상은 '하느님의 말씀'(* 마르 7,13; 요한 8,47; 히브 4,12)이라는 빵으로 채워지지 않는 데 있다. 이 정신적 양식을 너희가 풍성히 베풀어 주기 바란다. 특히, 내게 자신을 봉헌한 내 소중한 아들들인 너희는 누구에게나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한층 더 분발하기 바란다.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되, 온전하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내 성자 예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셨듯이 힘차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교황 및 그와 일치한 주교들의 '교도권'에 더할 나위 없도록 잘 순종하면서 참 신앙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못한다. 사람은 또한 '하느님의 은총'으로 산다. 예수께서 영혼의 굽주림을 채워 주시려고 사람에게 베풀신 은총이다. 물질적 재화에 대한 빈곤 이상으로 중대하고 위험한 윤리적 빈곤이 있다. 이 빈곤을 이루는 것은 수많은 내 자녀들로 하여금 악과 죄, 무질서한 육정, 특히 불순결의 종이 되게 하는 무거운 명예이다. 너희 가운데는 이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게다가 내 '원수'의 속임수는 또 얼마나 교활한지! 그는 자주 너희의 사제적 열성을 가난한 이들과 착취당하는 이들의 상처 치유에만 온통 쓸리게 함으로써 특히 죄인들과 악인들의 깊은 상처를 보는 일에는 소홀히 하게 한다. 굽주림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느님의 은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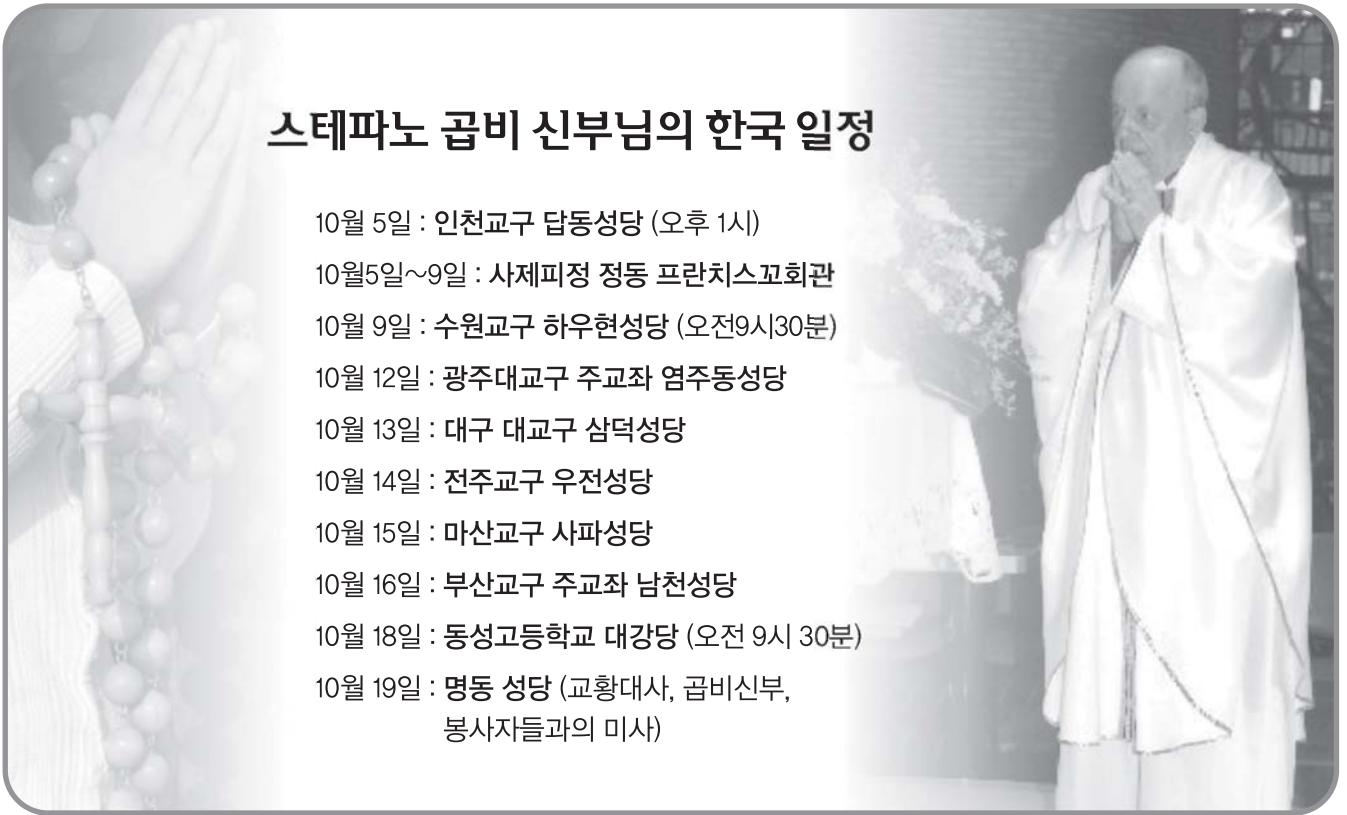
'을 양식으로 주어라.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언제라도 기꺼이 '화해의 성사'를 줌으로써 죄인들이 하느님 '자비'의 샘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야 한다. 너희에게는 지금이 은혜로운 때이다.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때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멸망 위험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바로 너희 자신이 충실했던 화해의 일꾼이 되어 다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만, 무절제한 이기심, 인색, 증오, 폭력, 그리고 심각한 사랑불능증의 끔찍한 종살이를 하고 있는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일치와 사랑의 길 뿐이다. 예수께서 무한히 숭고한 선물, 즉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너희에게 주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예수께서는 너희 영신 생명의 양식이 되시려고, 또 너희에게 참 사랑의 능력을 길러 주시려고, '성체' 안에 현존해 계신다. 예수께서는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너희를 통해 사랑하시려고, '성체'로써 당신 자신을 너희에게 주신다. 성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뺨'이니, 먹으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양식이요,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물이다.(*요한 6,54-55; 요한 4,14 참조)(...) 성체 예수님은 너희 모두를 사랑과 화해와 일치의 길, 평화와

자비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신다. (...) 오늘 나의 당부는 너희 모두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어 드리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재림의 어머니'인 나는 새 시대를 여는 문이다. 이 새 시대는 '예수 성체 왕국'의 가장 위대한 승리와 때를 같이 하여 열릴 것이다. 그러니 이 특별한 해에, '지극히 거룩한 성체'께 대한 흠풍과 보속과 사랑에 찬 조배가 전국 어디서든지 꽂피게 해다오. 너희가 맡고 있는 교회에서 '지극히 거룩한 성사'를 현시하는 관습을 되살려, 장엄하게 공적 흠풍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성체'야말로 너희의 기도와 생활과 예배와 교회 집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오늘날에도 '성체 예수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인간 정신의 굶주림을 채워 주시고, 당신 '은총'으로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 주시며, 당신 '사랑'으로 마음의 굶주림을 채워 주신다. (...) 내가 터없이 깨끗한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 다니고, 내 모성적 축복으로 너희를 떠받쳐 주마. □

(이 메시지는 1973년부터 1997년 까지 성모님께서 스텔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스텔파노 곱비 신부님의 한국 일정

- 
- 10월 5일 : 인천교구 답동성당 (오후 1시)
 - 10월 5일~9일 : 사제피정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 10월 9일 : 수원교구 하우현성당 (오전 9시 30분)
 - 10월 12일 : 광주대교구 주교좌 염주동성당
 - 10월 13일 : 대구 대교구 삼덕성당
 - 10월 14일 : 전주교구 우전성당
 - 10월 15일 : 마산교구 사파성당
 - 10월 16일 : 부산교구 주교좌 남천성당
 - 10월 18일 : 동성고등학교 대강당 (오전 9시 30분)
 - 10월 19일 : 명동 성당 (교황대사, 곱비신부,
봉사자들과의 미사)



성모님이 아기예수를 안고 발현하신 곳.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

가라반달 성모마리아의 발현

이곳은 스페인 북쪽의 조그마한 마을로서, 산탄데르주에 소속되고, 유럽 산맥의 정상 근처에 자리잡고 있으며, 험준하고 아름다운 배경을 지니고 있다. 불과 3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원래 이름은 산 세바스챤 데 가라반달이다. 해발 600m 높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의 수도로부터 약 57마일 가량 떨어져 있다. 그 마을에는 의사가 없으며 교구 소속 성당에 상주하는 사제도 없다. 주일미사는 이웃 마을 꼬시오로부터 오는 사제가 집전하곤 한다.

1961년 6월 18일 11살과 12살의 마리 롤리, 콘치타, 마리아 크루즈, 히야친타 네 소녀가 마을 교외에서 놀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마을 과수원에서 주인 몰래 사과를 훔쳐서 돌멩이가 많고 낮은 곳에 위치한 길에 숨어서 먹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큰 광채 속에서

이상한 빛을 본 콘치타는 "오, 오."하는 신음 소리를 내더니 두 손을 잡고서 무아지경에 빠져들었다. 콘치타의 모습을 보고 놀란 아이들은 급히 어른들을 부르려고 마을을 향해 가려는 순간, 그들도 똑 같은 모습을 보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소리쳤다. "오, 천사다!" 그들이 본 것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 속에서 푸른 색의 긴 옷을 입고 분홍색 날개를 단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다. 뜻밖의 사건에 놀란 어린이들은 마을 교회로 도망을 갔고, 이 소식은 온 마을에 알려지게 되었다. 다음 날 어린이들이 다시 그 곳에 갔을 때 천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걱정말아라.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6월 20일 아이들은 똑 같은 길에서 다시 빛나는 광채를 보았다. 그 후 10일 동안 여러 번 아이들에게 나타나던 천사는 가르멜 산의 성모님 발현이 있을 것을 알렸다. 이렇게 시작된 가라반달 성모님의 발현은 1961년 7월 2일부터 1965년 11월 13일까지

4년 5개월 동안 무려 2000회가 넘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미카엘 대 천사에게 성체를 받다.



미카엘 대천사와 목격자

성모님의 발현 소식은 빠르게 전파되었다. 7월 2일 날 이 소식을 듣고 현장을 목격하고자 하는 수 많은 방문객과 마을 주민들이 사제들과 함께 그 장소에 모여 들어 혼잡을 이루었다. 거기에는 사회 각계 각종의 사람들과 타지역으로 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의사와 사제들도 끼어 있었다. 오후 6시에 대천사가 약속한 장소에서 성모님은 두 천사를 동반하시고 그 소녀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두 천사 중에 성 미카엘 대천사도 있었다. 어린이들은 그 날 발현하신 성모님의 바로 위에는 하느님의 눈으로 보이는 커다란 눈이 있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성모님은 푸른 망토에 흰색의 긴 드레스를 입으시고 금으로 만들어진 별들로 장식 된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가늘고 긴 손으로 양팔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성모님의 오른손에는 갈색 스카풀라를 들고 계셨습니다. 성모님의 머리는 짙은 밤색을 띠고 있었고 18세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셨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정교한 코와 약간 얇은 입술은 매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으며 이 세상의 어떤 여인의 모습도 성모님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들어 볼 수 없는 천사의 음성으로 당신을 '가르멜의 성모'라고 밝히셨습니다. 저희가 '복되신 성모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 드리자 성모님은 미소를 지으시고 '나는 너희들이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어린이들처럼... 떨어져 있던 보고 싶은 엄마를 만나 기뻐하는 어린이들처럼 나를 대해주기 바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도 1961년과 1962년 동안 성모님은 여러번 발현 하셨다. 4명의 소녀들은 발현을 언제나 동시에 보지는 않았으며 때에 따라서 한 사람 혹은 둘, 세 사람이 보기로 했

다.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에 의해서 많은 상처를 받으시는 시간에는 희생과 보속을 대신하시는 모습으로 발현하시기도 하셨다. 발현이 시작되면 소녀들은 즉시 무릎을 꿇었으며, 이때 그들의 무릎은 큰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돌들에 부딪치곤 했지만 전혀 아픈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성모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신비스럽고 아름다웠으며 그 아이들의 눈은 큰 기쁨과 열렬한 환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탈혼 상태가 될 때는 주위의 어떤 상황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강력한 빛을 그들의 눈에 비추이기도 했지만 전혀 눈을 깜빡거리거나 불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발현이 끝난 후 그와 같은 밝은 빛을 보면 즉시 눈을 가렸다. 아이들이 성모님의 발현을 볼 때면 마치 시간이 정지된 머리가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눈은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름답게 조각된 듯한 부동의 자세로, 혹은 맨발로 눈 위에 있기도 했지만 탈혼상태가 끝나면 깊은 평화와 기쁨이 가득 넘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소녀들에게 여러 가지 물건들 가령, 성서, 묵주, 스카풀라, 메달, 십자가, 결혼반지 등을 주며 성모님께서 입맞춰주시기를 청했다. 소녀들이 그 물건을 드리면 성모님께서는 입맞춤을 해주셨다. 이 성물들을 돌려 받은 사람들은 간혹 장미꽃 같은 신비스런 향기를 맡기도 했으며 때에 따라서 매우 특별한 은총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꼳치따는 사람들에게 "성모님께 입맞추어진 그 성물들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 할 수 있다. 그리고 항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스카풀라를 착용하는 이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상에서 그들의 연옥 형벌을 마치게 될 것이다."라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소녀들은 탈혼 상태에서도 그 성물들을 성모님의 지시에 따라서,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친구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그 십자가로 그들을 축복하기도 했다. 소녀들을 만나 본 수 많은 사람들은 그들 안에 매우 깊은 내적 감동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마리 룰리가 미카엘 대천사에게 성체를 영하고 있다.

성모님께서 미래에 있을 더 큰 기적을 말씀하시다.

또한 대단한 영적 깨우침으로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현존하심을 체험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가르멜의 성모님이 발현하신 후 아이들은 곧바로, 탈혼상태에 빠진 상태로 걷기 시작했다. 하늘을 응시한 채 계단이나 기타 장애물들과 부딪치는 일 없이 마을 전체를 돌아 다녔다. 그들은 자주 가파른 산기슭 언덕을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 내려갔으며, 때로는 뒷걸음쳐서 올라가기도 했다. 그들의 몸은 중력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영적인 기민함이 주어진 듯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마을 위에는 가파른 언덕이 있는데 그 위에는 아홉 그루의 소나무가 어우러진 작은 숲이 있다. 소녀들은 "어느 날 금으로 된 성합을 든 한 천사가 소나무 숲에서 나타났다. 그 천사는 고백의 기도를 하라고 말한 후, 우리에게 성체를 주었다."라고 말하였다. 1962년 5월 2일 천사는 꼰치따에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녀의 혀에 얹혀져 있는 성체를 보게 될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1962년 7월 18일, 기적을 보려고 각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마을은 대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콘치따는 한 밤중에 탈혼상태에 빠져 거리로 나가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이 비추이는 손전등들이 그녀의 얼굴에 비추어졌다. 한 곳을 응시하고 있던 그녀가 혀를 내밀자 잠시 후에 하얀 성체가 그녀의 혀 위에 나타났다. 바르셀로나에서 온 실업가 돈 알레한드로 다미안스씨는 그녀로부터 불과 3피트(0.92m) 이내의 거리에서 분명한 상태로 그 장면들을 촬영할 수가 있었다. 그 필름에는 79개의 초자연적 장면들이 찍혀 있었다. 그 목격자는 필름의 사본과 함께, 산탄데르 교구의 주교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다. 뾰테스에서 온 농부 돈 벤하민 고메스씨는 그 장면을 다음처럼 증언하였다. "나는 그 소녀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곳에 서 있었다. 그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혀 위에 희고 찬란하게 빛나는 하얀 성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작렬하는



가르멜의 성모마리아

태양 빛에 반사된 것처럼 빛나 있었다. 그 소녀의 얼굴은 천상을 경험하는 듯이 무아지경속의 아름다운 천사 같았다. 나는 그 소녀가 손이나 혀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부동적인 자세로 영성체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음을 증언할 수 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 모두 이 놀라운 현상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속되었다. 나는 어떠한 환시나 신비를 쫓아 다니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다. 그때까지 내가 하느님께 관련된 것은 죄지은 것 밖에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날 이후로 나는 23년 동안을 냉담상태로 지내왔던 죄를 씻기움 받고자 고백성사를 보았다." 이 날

의 성체 기적은 가라반달에서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꼰치따는 모든 사람들이 성모님의 발현 사실을 믿고 그 메시지에 충실히 따르게 하기 위해서 가라반달에서 더 큰 기적을 행하실 것을 성모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했다. 그 일은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지극하신 사랑의 표시로써 소나무 숲이 있는 곳에 영원한 표징을 남길 것이다. 그 기적은 성체를 열렬히 흡모했던 어떤 성인의 축일인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시작될 것이며, 약 15분간 지속된다고 한다. 또한 성교회의 중대한 사건과 일치할 것이라고 한다. 꼰치따는 "그 표징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며, 눈으로 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으며 TV로도 방영될 수 있지만 손으로는 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타날 그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느님 소유의 어떤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날 가라반달에 오는 병자들은 치유를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게 될 것이다. 꼰치따는 8일 앞서서 그 기적의 날을 발표할 수 있도록 성모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었다. 그 날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무서운 징벌에서 세상을 구하기 위한 성모님의 메시지가 확인되는 날이다. 언젠가 꼰치따는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내가 기적의 종류를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밝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 8일까지 날짜를 밝힐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분명한 것은 그 기적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인류가 하늘로부터 경고를 받을 것이라는 성모님의 메시지

사제들이 바른 길을 걷지 않는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다. 꼰치따는 다음처럼 기록하였다. "그 경고는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있던지 전세계 어디에서나 보게 될 것이며 그날은 어느 종교에 속해 있는가 이전에 신자나 비신자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죄를 밝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의 상태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나타날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경고를 보고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들을 죽이려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양심을 치유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큰 두려움을 갖고 하느님을 경외하게 해줄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지어온 이 기적인 죄에 대하여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은 다가올 징벌에 대한 경고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인류에게는 초자연적 은총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하기 위한 정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히야친따도 복되신 어머니로부터 "그 경고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최악일 때 올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 그 날짜는 발현목격증인들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 해를 알고



성모님이 성물들을 친구하셨던 소나무 숲

있는 마리-롤리는 기적이 경고 후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만약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모님에 의해서 알려진 그 징벌은 기적이 있은 후 전세계에 닥치게 될 것이다. 소녀들이 보았던 여러 환시들 중의 한 경우에서, 그들은 무죄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징벌에 관한 그 메시지를 듣고 동시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 후로, 그 소녀들은 많은 영적 희생을 하면서 사제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만약 사제들이 바른 길을 걷지 않는다면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꼰치따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그 징벌이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결과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무섭고 떨린다는 사실 이외에 징벌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징벌로 인하여 죽는 무죄한 어린이들보다는 자연사로 인하여 죽는 무죄한 어린이들의 고통이 더 나을 것입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그 징벌이 오기 전에 고백성사를 보아야 하며, 믿지 않는 이들도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여야 합니다. 내가 미래에 올 그 징벌의 장면을 보았을 때 성모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소녀들은 그 징벌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성모님의 얼굴이 매우 슬퍼 보이셨다고 말한다. "우리는 성모님의 얼굴이 그토록 심각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잔이 이미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성모님은 매우 슬픈듯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1965년 1월 1일에, 성모님께서 꼰치따에게 나타나셔서 그해 6월 18일, 즉 4번째 발현기념일에 다른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꼰치따는 그 기념일 6개월 전에 성모님의 이 약속을 공개하였다. 6월 18일에, 가라반달에는 약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다. 사람들 중에는 신문·잡지 기자들, 이탈리아 TV 방송과 스페인 공영 NO-DO 다큐멘터리 뉴스 프로그램 팀도 있었다. 오후 11시 30분에 꼰치따는 그녀의 집을 떠나서, 파드로라고 불리는 장소에 도착하기 위하여 소나무 숲으로 향했다. 그 곳에서 그녀는 16분간 지속된 탈혼상태에 빠졌다. 성 미카엘 대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성모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이 공개되었다. "10월 18일의



1962년 혹은 1963년경 찍은 것으로서, 히야친따가 성모님으로부터 친구받을 십자가를 포함한 물건들을 높이 들고 있다.

나의 메시지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것이 나의 마지막 메시지임을 알린다. 이미 진노의 잔은 가득 찼으며, 지금은 넘쳐 흐르고 있다. 성체에 대한 공경이 줄어 들고 있으며 많은 초기경들, 많은 주교들 그리고 많은 사제들이 파멸의 길에 있다. 그들은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하느님의 진노를 피하여야 한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기에 너희들의 엄마인, 나는 성 미카엘 대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너희들의 진실한 회개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마지막 경고 중의 하나를 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매우 사랑하기에 유죄판결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진실하게 우리의 도움을 청한다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난을 더욱 많이 묵상하고 희생을 바치기 바란다." 이 메시지는 1961년 10월 18일 성모님의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에 실망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사제들에 대한 모성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체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여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주신다. 성모님은 경고와 기적에 앞서서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그분의 간청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원하신다.

가라반달에서 복되신 어머니를 보았던 유일한 다른 사람은 38살의 스페인 예수회 사제, 루이스 마리에 안드레유 신부였다. 1961년 8월 8일에, 루이스 신부는 소나무 숲 앞에서 구경꾼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 이후 그는 가라반달 이야기의 일부분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가 "기적이다! 기적이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를 보았을 뿐 아니라, 장차 나타날 큰 기적을 보게 되었다. 탈hon상태에 빠진 어린이들은 성모님께서 그에게 다음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너는 곧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결코 심한 질병을 앓아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는 완전한 환희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았다. "오! 우리가 하늘에서 모시게 될 감미롭고 사랑스러우신 어머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복되신 동정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놀랍구나! 우리가 하늘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어머니를 모시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

한 일인가! 초자연적 삶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소녀들은 우리가 복되신 동정녀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나는 소녀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는 데에 추호도 의심이 없다.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오늘이 나의 생애中最 가장 행복한 날이구나." 이러한 말과 함께 루이스 신부는 머리를 떨구었으며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 성모님께서는 "그 기적이 발생한 후 어느 날 그의 육체는 부패되지 않은 채 발견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모든 사제들에 관한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보이셨으며, 그리고 그들이 가라반달을 방문할 것을 거듭 요청하셨다. 성모님께서는 소녀들에게 사제들이 평신도 복장을 하고 오더라도 그들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들의 영혼 상태를 밝혀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성모님은 어린이들에게 사제들이 천사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신품성사로 인하여 거룩한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를 성체와 성혈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1965년 11월 13일 토요일, 꼰치파는 가라반달에서 성모님의 마지막 발현을 봤었다. 꼰치파는 편지 형식으로 그 내용 알려주었다. "어느 날 성당에서, 성모님은 나에게 12월 13일 토요일, 소나무 숲에서 당신을 뵙게 될 것을 내적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날은 성물들을 친구해 주시는 특별한 발현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행복의 씨앗을 나의 삶에 심어주셨던 복되신 동정녀와 아기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날 나는 사람들이 맡긴 많은 묵주와 함께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미소를 짓고 계신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성모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성모님의 입맞춤을 받을 많은 묵주들을 가져왔다고 하자 성모님께서는 '그래 알고

나는 모든 자녀들을 나의 망토 아래 보호한다!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씹고 있던 껌을 이빨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꼰치따야, 너는 왜 그것을 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희생으로 바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즉시 껌을 버렸습니다. 성모님은 그 후에도, '너는 내가 너의 성인의 축일 날에 말했던 것 – 즉, 너희들이 지상에서 많은 고통을 겪으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느냐?. 자, 나는 또 다시 반복하여 말한다. 신뢰하여라. 우리의 성심 안에 기쁘게 모든 것을 바쳐라. 너희는 우리와 더욱 일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말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부족한지요. 오 당신을 통해서 받았던 무수한 은총이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지금은 제가 지닌 작은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꼰치따야, 나는 너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우리의 성심 안에 더욱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란다. 네가 가져온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이리 가져 오너라.' 내가 가져온 조그만 십자가와 함께 모두 드리자 성모님께서 그 성물들을 친구하시며 그것을 아기 예수님의 손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기 예수님께 성물들을 드리며 '이 십자가는 제가 수녀원에 들어갈 때 가져 가려고 해요. '라고 말씀 드렸으나, 아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모든 성물들에 입맞춤을 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성물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지향들을 성모님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자 성모님은 '꼰치따야, 나의 자녀들에 관한 일들을 나에게 모두 말하여라. 나는 모든 자녀들을 나의 망토 아래 보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모님의 망토는 너무 작아서 우리 모두가 있을만한 자리가 없어요.'라고 말씀드리자 성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꼰치따야, 너는 내가 왜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너에게 주기 위하여 6월 18일에 직접 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 몹시 괴로왔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그것을 실천하면 하느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말해야만 했다. 나는 너희를 매우 사랑하기에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 모두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둘레에 모이게 하려는 것이다. 꼰치따야, 네가 응답할 수 있겠니?" 나는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착하지 않기 때문에 성모님을 언제나 볼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



네명의 발현 목격 증인들

서는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 된다. 우리는 너와 함께 하며 도울 것이다. 물론 나의 딸들 마리-롤리, 히야친파, 그리고 마리-크루스도 그리고 모든 자녀들과 늘 함께 할 것이다. 꼰치따야, 너는 왜 가장 성스러운 성체 안에 계신 나의 성자를 왜 자주 방문하지 않느냐? 밤낮으로 너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을 자주 방문하기를 바란다." 그 날은 비가 몹시 내리고 있었으나 성모님과 꼰치따는 비에 젖지 않았다. "나는 성모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오 제가 성모님을 뵈올 때 얼마나 행복한지요. 왜 저를 지금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까?' 성모님은 '내가 너의 성인의 축일날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여라. 하느님 앞에 갈 때 너는 성부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들에게 행한 선한 일들로 채워진 손을 그분께 보여드려야 한다. 그러나 너의 손은 지금 비어 있다.' 나는 하늘에서 오신 나의 어머니와 아기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그분들을 다시 뵈올 수는 없으나, 그분들이 늘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큰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고치고 싶은 희망을 주셨기에 이제 나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성심과 성모성심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징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돋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고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실 기적에 앞서 우리들의 정화를 위한 것이며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성모님의 이 발현과 함께, 가라반달에서 계속되던 발현들이 끝났다. 그 메시지는 기적이 발생하는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분명히 확인될 것이다. 이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M

<이 기사는 kr.blog.yahoo.com와 garabandalmessage.com에서 발췌 정리했습니다

나는 성모님과 함께 열정적인 사제직을 살아 갈 것이다!

저자: 사브리나 꼬비치
옮긴 이: 남기옥 마르타



발현 초기의 요조신부

질문 : 1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미사를 봉헌하신 적이 없었습니까?

요조 신부 :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폐르도 신부님과 요조 크리지치 신부님, 저 이렇게 세 명이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문도 보내고, 탄원서도 보냈건만…

질문 : 교도소에 세 분의 신부님이 수감되어 계셨습니까?

요조 신부 : 그렇습니다, 우리 세 명만 방에서 미사를 드릴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성경을 부탁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성경때 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도대체 무슨 용기로 성경을 요구한단 말이오?" 도서관에는 공산당원들의 책은 있었지만 성경은 없었습니다.

질문 : 성경, 묵주, 영적 서적, 미사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었다니 고통이 무척 심하셨겠습니까!

요조 신부: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은 그 어떤 것

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무척 심한 중이염을 앓고 있어서 의사가 필요했지만, 진찰을 받을 수 없어서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가 절망하지 않도록 마음 깊이 무한한 평화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다루는 방법도 모르는 저에게 손과 팔이 절단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기계를 작동시키는 일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지고 미사를 드려야 하는 사제로서, 나는 손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며 교도소 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단식투쟁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나에게 강요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겨우 만난 교도소 소장은 저를 만나자마자 소리쳤습니다. 그들을 보니 저를 죽이려는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먼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의사가 노동 가능 여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제가 중이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가능했습니다. 죄수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건강을 잃어 장애자가 되어도, 아니 생명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라예보에서 온 유태인 전문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신문을 떠들썩하게 만든 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여기 생활이 어떻습니까?" 내가 "맞습니다!" 하며 교도소 생활을 말하자 그는 내가 속히 귀를 치료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질문 : 그 의사가 신부님을 구했군요?

요조 신부: 오! 그렇습니다! 정말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분이 저를 도와준 것 때문에 어떤 고통을 치루셔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보호를 통해 제가 위험에서 벗어나자 불같이 화를 내던 교도관의 모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큰 가구들을 제작하



는 일을 했는데, '포챠-드리나'라는 이 제품들은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 전체에 팔리던 가구입니다.

질문 : 지금도 사람들이 그 가구들을 가지고 있겠군요?

요조 신부 : 출감 이후 교우들의 집을 축성할 때 가끔 가구들을 보았습니다. 워낙 인건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가구 가격이 비싸지 않았습니다. 또 옷장 속의 선반이라든지 작은 귀퉁이, 조립부품들의 세밀한 면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 가구들을 만들던 교도소의 작업장 내에서 오가던 욕설들을 견디어 내야하는 고통을 당신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질문 : 어느 날 신부님의 석방이 통보되었다지요?

요조 신부 :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시 재판을 받았고 1983년 2월 7일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출소하기 전 열두 시간씩이나 저를 붙잡아 두면서 늦장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방에서 나오기 전 철저하게 몸을 수색하면서 저의 소유물들과 재판에 연관된 모든 기록과 문서들까지 모두 압수했습니다.

질문 : 지옥같은 교도소 생활 이후,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요조 신부 : 모든게 더럽게 느껴졌으니까… 누구도 마중을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버스를 타고 혼자 집으로 갔습니다. 비예로 폴리역에서 많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모여 있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 여동생 파비아나가 살고 있는 곳에도착했을 때는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곳은 "프란치스코회 교육수녀회"의 모원이 있는 곳으로 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수도원으로 불려졌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수녀님들과 함께 소성당에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981년 8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때는 너무나도… 엄청난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성당에 모인 수많은 수녀님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니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스타르 수도원에 가서 하루를 지낸 뒤, 아침에 주교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경찰관이었는데, 저 때문에 무척 어려움을 당했는지 저를 보고 두려운 얼굴로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아직 살아 계셨군요! 어떤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말할 엄두도 못 냈는데 그 사람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메주고리예로 가서 관구장님을 만났는데 "메주고리예에는 이미 다른 사제들이 있는데, 신부님은 이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니 문제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메주고리예에서 공산당에 의해 강제로 소집된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7km 정도 떨어져 있는 분원으로 발령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제가 정치범으로 입건되었기 때문에 본당에 속해 있을 수 없으며 대중 앞에 나서지 말라는 것, 젊은이들 사목에 관여하지 말고 설교하면 안된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제가 공산당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아직 교도소에서 쌓 짐을 풀지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포챠 교도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내가 사제로서 신자들을 위한 사제직 수행을 적당하게 하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하지 마라. 오히려 나는 내가 그동안 깨달은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열정적인 사제직을 살아 갈 것이다!" 그들은 제 말에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지난 뒤 전화도 없고 성당으로 들어오는 길도 없는 본당으로 발령을 받고 온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순례자들은 몇 킬로미터 전방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제가 있는 본당까지 걸어 올라오곤 했습니다. 매주 수, 금요일 기도회를 시작하자 그 지역의 수백 명이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리 교육에 참여하자, 공산 정부에서는 저를 골탕먹일 또 다른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본당 사무실에 강제로 침입해서 모든 것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군입대 전 별이는 축제에서 젊은이들이 노래하는 습관이 있는데, 경찰측은 이 젊은이들이 내쇼널리즘적인 노래를 했다고 생트집을 잡으면서 젊은이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

교회는 메주고리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메주고리예는 특별한 은총의 장소

숀본 추기경 비엔나 대교구장

2009년 9월 15일 화요일 저녁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교구 성 스테파노 주교좌 성당에서 개최된 평화를 위한 철야 기도회에 수 천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메주고리예 발현 목격증인 마리아 파블로비치와 숀본 추기경이 그 모임에 함께 했다. 수 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성 스테파노 주교좌 성당은 통고의 어머니 축일을 기념하는 화요일 저녁 시간 내내 메주고리예 정신으로 충만했다. 지난 해처럼 올해도 세계 평화를 위한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수 천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기도 회의 성공과 비엔나 대교구의 지향을 위해 성 스테파노 성당에서 매일 저녁 기도를 바쳐왔던 여러 기도 모임과 수도 공동체들이 9일 기도에 이어 마련된 이 기도회를 주최했다. 이 기도회의 주제는 "너희를 위한 메시지!" 였고, "평화의 오아시스"와 메주고리예 평화의 모후 성모님 기도 운동 단체가 이 기도회를 후원했으며 성 요한 공동체의 기사단이 빈틈 없이 행사를 준비했다.

이 기도회의 특별 연사는 1981년 6월 24일 아래 "메주고리예 어린이들"로 불리웠으나 지금은 성인이 된 여섯 명의 발현목격증인 가운데 한 사람인 마리아 파블로비치 누네띠였다.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찬 주교좌 성당에서

마리아 파블로비치 누네띠는 성모님의 매일 발현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희가 이 은총을 받도록 선택되었는지 저희는 저희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저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루 하루 날이 지나면서 저희는 좀 더 깊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의 지향을 위해 희생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셨고, 저희에게 기도 모임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 모임들을 통해 저희는 더 많이 기도하고, 희생하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메주고리예는 하느님께로 돌아가라는 하느님의 어머니의 초대였습니다. 저는 하느님 없이 이 세상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성모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교구를 방문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완전히 변화되어 빛의 근원이 되고,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도중 발현목격증인 마리아 파블로비치 누네띠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시자 기도는 멈추어졌고, 많

메주고리예는 하느님께로 인도되어, 많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에서 체험한 것처럼 주교좌 성당 안에는 깊은 침묵과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 후 오스트리아 교황청 전교회를 담당하고 선교 지역 원조 단체 '미씨오'의 전국 책임자인 레오 마스부르그 신부가 여러 사제들과 함께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했는데 미사 끝에 신자들을 성모성심께 봉헌하는 예절이 거행되었다. 이어 비엔나 대교구장 손본 추기경이 성시간을 집전했는데, 추기경은 그처럼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주교좌 성당에 운집한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어머니에 의해 하느님께로 인도되어, 많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고해소를 찾으며 성체성사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 드려야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가족들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마약과 각종 중독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계시는 것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이 지역의 많은 곳에서 일어났고, 메주고리예에서는 여러 해 동안 특별한 방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단순한 성격의 사



손본 추기경과 발현목격자 마리아
람들이 마리아님을 체험하는 것은 시대의 징표입니다."

추기경은 감사의 말로 끝을 맺으면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시작된 비엔나 대교구 2010년 선교 계획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덧붙였다. M

(katholische Nachrichten 독일어 인터넷 – Kath.net – 2009년 9월 21일
자에서 발췌)

2009년 10월 2일 미리야나에게 주신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
너희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나의 자녀들아,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희 자신을 멈추게 하는 법도 모른 채 그렇게 죄에 깊이 빠져 있느냐?
너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죄에 따라 살고 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아드님을 바라보아라.
나의 자녀들아,
그분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죄를 이기고, 돌아가셨다.
너희가 죽지 않고 내 아드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둘째 해다오. 고맙다!"

우주의 여왕 (12)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발현 목격자 비츠카

온 한 무리의 사람들, 또 그 뒤에는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그녀의 집 밖 좁은 골목에 줄을 서 비츠카를 만날 차례를 기다리곤 한다. 성모님은 무슨 옷을 입고 계신가? 머리 모양은 어떠신가? 비츠카, 당신은 정말 성모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가? 몇 년 동안 비츠카는 이런 종류의 동일한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비츠카는 전에 한번도 이와 같은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듯이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모든 질문에 답한다. 빛나는 검은 눈동자에 중간 정도의 키의 비츠카는 자신의 생각을 바로 말해버릴 정도로 솔직하고 직선적인 성격이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하느님과의 삶, 그것만이 중요할 따름이다. 비츠카가 감내해야 했던 육체적 고통이 너무 컸던 탓에 그녀의 생동감 넘치는 활기도 다소 가라앉았다. 그녀는 지금 더욱 사려 깊어졌으며, 보다 양보적인 성격이 되었다. 그녀는 전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누군가와 자신의 체험을 나누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때때로 비츠카는 어둠이 밀려온 후 집 뒤에 있는 포드브르도에 미끄러지듯 올라가, 홀로 혹은 몇몇 친구와 함께 기도한다. 그것



이 그녀에게 유일한 휴식이다. 그녀는 남을 위한 봉사에 나머지 모든 시간을 쏟아붓는다. 아마도 이것이 성모님께서 발현목격증인들 중 비츠카를 골라 당신 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주신 이유일 것이다. 점점 극심해지는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던 비츠카는 1986년, 수술이 불가능한 뇌종양이라는 진단과 함께 고열과 혼수상태를 초래하는 관절 팽창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1988년 2월 25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비츠카에게 발현하시어 세 장의 편지를 쓰라고 일려주셨다. 한 장은 비츠카의 고해 신부인 얀코 부발로 신부에게, 또 한 장은 성모님 발현을 조사 중인 주교 위원회에,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메주고리예 성 야고보 본당 사제관에 머물고 있는 사제들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편지들은 철저히 봉해져 각각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1988년 9월 25일(비츠카의 24번째 생일이 2개월하고 3주가 지난 날), 비츠카는 편지의 수령인들에게 중인 두 명의 참관 하에 봉함 편지를 개봉해 줄 것을 요청했다. 7개월 전에 작성된 세 통의 편지에는 모두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비츠카의 병은 그녀에게 주는 하느님의 징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내용이었다. 비츠카는 자발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였고, 그 목적은 죄인들의 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비츠카의 희생은 9월 25일 끝날 것이며, 그날 그녀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편지의 내용대로 비츠카의 병이 나았다. 결혼하여 어린 딸의 엄마가 된 비츠카는 자신의 가족과 순례자들, 그리고 아픈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고 있다. 그녀는 매일 성모님을 만나 뵙는다. 비츠카는 아홉 개의 비밀을 받았다. 누군가가 비츠카의 역할을 시샘해 하루 동안 그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부추겼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생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 또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녀에게 있는 유일한 바람은 길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잃은 영혼들을 위한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기쁘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쏟아 붓고 있다. 그녀는 왜 이다지도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것일까? 다음의 인터뷰 내용이 이러한 의문점들을 명백하게 해 줄 것이다.

* * * * *

질문 : 비츠카,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예에 발현하시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츠카 : 성모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 중에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느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는 끔직한 대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무엇이든지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머니이신 그분은, 하느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내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질문 :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츠카 :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모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이시며,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그분의 메시지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부르던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비츠카 :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구분 짓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여부와 상관 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질문 : 마리아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비츠카 : 모든 이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당신 자녀들을 당신 아드님께 데려오시고, 당신 아드님께서는 그들을 하느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십니다.



발현 초기의 목격증인들

질문 : 얼마 동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뵙고 이렇듯 심오한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비츠카 : 1981년 6월 24일 이후 줄곧 그래왔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 당신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즉시 느끼십니까?

비츠카 : 물론입니다. 당신도 성모님의 거룩함을 매우 강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질문 : 발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비츠카 :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에는 항상 앞서 밝은 빛이 나타납니다. 먼저 그분은 저에게 인사하십니다. 그런 다음 어떤 특별한 일이나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성모님과 저는 함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질문 : 성모님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비츠카 : 성모님의 눈은 파란색인데 매우 아름답습니다. 또 머리칼은 길고 검은색인데 약간 구불구불합니다. 성모님은 아른거리는 긴 드레스와 베일을 쓰고 계시며, 그분 머리 주위에는 항상 12개의 별이 마치 왕관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질문 : 성모님 옷은 무슨 색깔입니까?

비츠카 :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아 온 색깔과는 다른 색입니다. 회색이라 불리는 색상과 가장 근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회색으로 알고 있는 그 회색이 아닙니다. 그분의 베일은 빛나는 흰색입니다.

질문 : 성모님은 늘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으십니까?

비츠카 : 아닙니다. 특별한 축일 기간 동안 성모님께서는 종종 황금색 옷을 입으시고, 황금색 베일을 쓰시며, 많은 보석들로 장식하십니다. □



TV가 기도를 몰아내고 말았어요

며칠 전에 나는 비스카의 사촌 카를로가 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황혼이 질 무렵 집을 향하여 골목길을 걷던 어린 시절에는..."라고 말문을 열면서... "집집마다 묵주기도를 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었지요. 그 당시 나는 창문에서 들려오는 주의 기도나 성모송 리듬에 맞추어 걸음을 걸었어요. 요즘도 전에 걷던 같은 길을 지나가지만 창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TV 소리뿐이랍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우리는 성모님께서 찾아오고 계시는 이 중요한 때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심각하고 한심한 노릇이지요."

요조 신부님은 "각 가정마다 TV가 기도를 몰아내고 말았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열정을 없애려고 이슬람이나 공산주의가 수백 년 동안 시도했지만 실패했지요. 그런데 금전 만능주의가 10년 만에 해냈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정말 희망이 없어진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진다.'라고 올부짖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잘 반영하는 것이다. 발현 초기에 성모님께서는 천국과 연옥에 관해 매우 흥미 있는 내용을 목격증인들에게 알려주셨다. 이 지

상에서는 알 수 없지만 천국에서 사는 성인들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자신이 지상이나 혹은 연옥에서 고통 받고 있을 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해 준 사람과 그 기도를 받은 사람 사이에 영원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내가 오늘 "하느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고보를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주면, 나와 야고보는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혈연관계의 사랑을 맺게 된다. 나의 단순한 몇 마디 기도가 그에게는 하느님의 은혜가 되어 마음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놀라움의 원천이 된다고 한다.

우리가 하늘 나라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 베풀어 준 아주 작은 희생과 작은 기도까지도 정확히 알게 된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를 만끽할 것이며, 우리를 위해 누가 언제 어디서 그 은총을 청했는지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한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가 이처럼 놀랍고 무한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그러기에 천국에서는 성인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정말 희망이 없어진다!

들이 바친 찬란한 통공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분명 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며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도 못한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도 못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일은 더더욱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에나의 가타리나 성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모태에서 죽은 자식들이라고 말했다. 이런 영혼들은 자기 스스로는 선한 길을 향하여 한발도 다가갈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 영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때가 되면 그러한 은총이 쌓여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영혼이 은총을 받도록 기도해 준 사람은 누구일까?

그 회답은 오직 하늘 나라에서만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기쁨이 있는 천국에서는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를 바친 사랑과 기도가 서로에게 큰 행복을 준다고 한다. 그것은 하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고 신비이다! 누군가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택한다면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특수한 은총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나는 종종 "죽은 자를 살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간단한 계명에 "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 것이 궁금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이미 4일이나 죽어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라자로의 믿음은 오늘날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묘지를 찾아가서 "자, 모두들 움직이십시오! 어서 일어나시라니까

요!"라고 외치라는 뜻은 아니다.

나는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에서 계명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연옥영혼들을 위하여 바치는 나의 기도 하나하나는 버림 받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고 죽음에서 살려주게 된다. 그리하여 내가 천국에 다다르면, 그 어린 사람처럼 기뻐하며 내게로 달려와서 서로 얼싸안고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자신이 곤경에 빠져 있었을 때 쓰러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고맙게도 다른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보다 오히려 TV를 더 좋아하고 있으니, 죽은 영혼들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있다. 누가 그들을 구해 줄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소파에 길게 누워 TV만 보게 하는 것이나,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나 미치광이처럼 물건이나 사려 다니게 하는 것은 모두 사탄이 바라는 것들이다. 메주고리예에서 산타 바바라(미국 로스엔젤레스 서북부에 있는 도시)라는 연속극이 미사 시간에 방영될 때는 미사에 참례하는 사람들 수효가 줄어든다. M

(성심의 승리에서 발췌)

Queen of Peace Missionaries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Tel : 02-2281-32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

발 행 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 / 편집인: 남 그레고리

지 도 신 부: 박창득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카푸친 작은형제회)

자문 위원 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선교학 박사)

한국 지부장: 박연자

후원회장: 권수정

웹 관리자: 제임스 윤

편집위원: 최성득, 이금희, 이규현, 송시원, 한데레사, 남미자

인쇄: 동방인쇄, 영인문화 인쇄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안내

미국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 Wachovia Bank 구좌번호 : 2000012394184
송금번호 : ABA# 031201467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예금주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동이체 후원 : 신한은행
구좌번호 : 100-021-159808

연락처 : 권 레지나 010-3654-3521
박안젤라 019-252-1387

노마리노 010-7310-9678
E-mail : qpmmkr@g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메주고리예 소식지를 제게 주신 예수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평화의 모후 선교회 모든 봉사자들과 아울러 남홍익그레고리오 내외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소식지 35호의 나눔터에 기록된 한 형제님의 신앙 체험 수기 "15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읽고 저의 신앙체험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8년 전에 저의 가정을 신앙과 영적인 길로 많이 인도해 주시는 한 자매님께서 15기도의 책자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 기도서를 읽어보고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토록 수 많은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침묵을 지키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오죽하면 인간의 고통으로 표현할 수 없어 우주적인 고통이라 했을까! 그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에 마음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또한 마음 한구석에선 기쁨과 희망이 부풀어 오르는 마음이 교차되기도했습니다. 엄마와 언니들과 저는 주님 십자가가 수난에 동행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저희들은 가족여행을 갈 때에도 이 기도서를 꼭 챙겨서 가곤 했습니다. 머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관으로 짓눌려져 있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몸에는 온갖 상처와 피투성이로 된 주님

을 묵상하며 저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말없이 묵묵히 지켜봐야 하는 성모님의 아픔을 생각하며 기도하니 한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1년간 해야 하는 기도이기에 부담감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15기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이 기도는 그냥 1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5호의 나눔터를 읽고나서 나는 이 기도가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면서 1년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망설임은 전혀 없었고 주님의 십자가 수난을 더욱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와 기적이 생겼습니다. 오래전부터 난 한 형제를 참으로 미워했으며 그 형제 앞에서 민망할 정도로 나의 얼굴 표정과 말씨 한마디 한마디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한 구석에 내가 이 형제를 미워하는게 주님께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 안에서 불편하게 계시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나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이 형제를 도저히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으니 당신의 힘으로 사랑하게 해 주세요." 하며 고백성사도 여러번 보아왔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여전했었습니다. 그런데 15기도를 시작하기 몇일 전에 저의 마음에선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나의 축복과 자비를 바랄 수 있겠느냐" 하며 너무나 강하게 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그 형제를 보았을 때, 그전같이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나의 말씨 또한 부드러워지며 사랑스럽게 대하게 되면서 저는 참으로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이 흐뭇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에게 성체의 중요성을 더욱 더 깨닫게 해주셨으며 성체를 더욱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모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갈바리아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노고를 당하셔야 했는데 이런 주님의 거룩한 성체를 제가 너무나도 성의 없게 쉽게 모셨음을 뉘우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터없으신 성모님께 저를 봉헌드리며 저의 신앙을 더해 주셔서 성체안에 계신 주님을 꼭 뵈올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



천상의 어머니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치유의 피정

- 지도신부 : 백 요셉마리아 신부
- 일 시 : 2009년 11월 13일(금) – 15일(일)
- 장 소 : 성 베네딕도회 뉴튼 수도원 피정의 집
- 준 비 물 : 성서, 필기도구
- 문 의 : 973-919-4946, lumen2000@hotmail.com



피정 지도신부인 백 요셉마리아 신부는 성베네딕도회 수도원에서 15년째 수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St. Leo 대학교에서 종교신학을 가르쳤고 개인 및 그룹피정 그리고 본당 피정들을 지도했습니다.

치유은사를 받아 20년 넘게 Healing Ministry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뉴튼수도원으로 적을 옮겨 수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캐나다 한 스텔라

첫째, 제가 메주고리예를 가기 전의 제 삶과 마음을 말씀 드릴께요. 저는 고등학교때부터 어머니의 깊은 신앙심에 대한 심한 거부감으로 기도를 더 하기 싫었고 주일 미사까지도 가지 않은 적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께 대한 반항심이 극에 달하자 신앙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은 필요없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시절부터 무엇인가 간절한 지향이 있을 때면 도와주시기를 청하며 기도하던 습관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23살이 되었을 때 2년 동안 한국에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썩 좋은 기억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살다보니 자연히 규칙적인 생활은 없어지고 하루 하루가 중심을 잊고 매우 흐트러진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가족들을, 특히 어머니를 속여 가면서 저는 어긋난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제 자신을 속여 가면서 살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2년을 그렇게 살아 온 저는 다시 뱅쿠버로 돌아왔습니다. 보고 싶었던 가족들과 다시 만나서 좋았지만,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자연히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와 남동생과 매일 싸우는 일밖에 없었죠… 친구들을 만날 때는 싫은 잔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행복하다는 생각에 자주 친구들과 어

울려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미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를 뒤에서 때리듯이 '쿵'하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잘못 살아왔던 지난 삶들이 분명하지만 엄청 빼른 속도로 눈 앞을 스쳐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평소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일들이라 크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똑 같은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제게 메주고리예 순례를 권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기가 매우 힘드셨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늘 어머니가 권하는 것을 무시하고 즉시 거절하곤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 같은 답을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셨을테니까요… 저는 평소의 습관대로 1초도 안걸리고 즉시 안가겠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나를 그런 곳에 보내려는 생각을 했어? 그럴꺼면, 차라리 그 돈으로 한국을 2번 보내주는 것이 좋겠어! 아무튼, 나는 그런 곳이랑 어울리지 않아! 나는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무엇보다 불쌍한 사람처럼 기도만 하는 엄마처럼 살기 싫어!" 마지막 날까지 간다, 못간다를 반복하기를 몇 번째… 결국 비행기를 탔지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짜증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독일에서 4시간을 혼자 기다리는 중 메주고리예를 가기 싫은 마음에 비행기 일정을 변경해서 집으로 돌아갈 생

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갑자기 순례단 일행들을 만났지만 전혀 가고 싶지 않았던 제 마음은 무겁고 어두웠을 뿐입니다. 크로아티아에 도착해서 아름다운 해안가에 풍경을 보며 순례를 했지만 너무 더워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년 전에 메주고리예를 다녀온 언니가 태양이 춤을 추는 걸 보았다고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유난히 강한 빛 때문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고 태양을 바라보던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목격하지 않은 분들은 제 말을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분명히 춤추는 듯이 움직이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강렬한 태양 주변의 빛이 없어지면서 영성체 모양의 태양이 나타나더니 마치 춤을 추듯이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온다거나 성모님께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감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에게 꼭 이야기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메주고리예에 도착해서 호텔방에서 짐을 풀자 웬지 그때부터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성모님이 처음 나타나셨던 발현산을 갔을 때 아무 생각없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천천히 산을 올라 갔습니다. 발현산 정상에 세워진 성모님께 기도를 하고,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려고 후례취가 터질 때 그 빛 속에서 너무나 선명한 그림이 눈 앞을 지나갔습니다. 발현산 성모님 앞에 있는 울타리를 잡고 울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이었지만 어머니는 성모님을 실제 만난 사람처럼 제발 살려달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애탏게 또 애탏게 울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모님 앞에 무릎을 끊었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보살펴주시고, 제가 어머니께 못 드린 사랑을 성모님께서 꼭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예에서 1년에 365일 24시간 저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항상 같이 계시고 보호해 주신 성모님의 뜨거운 사랑을 메주고리예에서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미사와, 신부님의 강의, 여러 공동체의 체험담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미워하고 있던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상처들을 치유 받고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성모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모르고 있던 제가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저에게 제일 중요한, 어머니의 깊은 신앙심과 믿음을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순례 후, 집으로

돌아 왔지만 제가 크게 변화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똑 같은 환경에서도 매우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행복을 느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기도생활을 키워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주고리예에서 큰 은총을 받고 왔지만 익숙해진 지난 습관들을 고치는 것은 정말 힘들은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저는 메주고리예에서 배운대로 고백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너를 메주고리예로 부르시어 큰 선물을 주셨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가 체험한 성모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제부터는 매일 조금씩 키워서 앞으로는 일상적인 삶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성모님께서 너에게 주신 숙제인 것 같구나. 그 답은 기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단다."

그 후, 신부님 말씀을 따라 묵주기도를 하는 중에 저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을 사랑으로 한다면 잘못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미사를 가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 중에서 예수님이 만날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제가 힘들 때 응답해주시고 의지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도 성모님께서 주신 5가지 조약돌(무기)로 같이 시작해보시겠어요?

1. 묵주 기도
2. 가능한 한 매일 미사 참례
3. 매일 성경 읽기
4. 단식과 회개
5. 한 달에 한 번 고해성사

우리 모두 다 성모님의 이쁜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2007년 6월 2일 성모님의 메시지

성모여행사

☎ (02)538-4581/053-639-0211/11-9568-9436/11-528-0694

홈페이지 : sungmotour.com / e-mail : stevenjkh@yahoo.co.kr

219차: 이태리, 메주고리예 (10박 11일) 2009년 10월 11일 ~ 10월 21일
로마, 란치아노, 산조반니로돈도, 띠할리나, 메주고리예

220차: 이태리, 메주고리예 (9박 10일) 2009년 10월 23일 ~ 11월 1일
로마, 란치아노, 산조반니로돈도, 메주고리예, 슈르만치, 띠할리나

221차: 이태리, 메주고리예 (12박 13일) 2009년 11월 11일 ~ 11월 23일
아씨시, 로마, 란치아노, 산조반니로돈도, 메주고리예, 슈르만치, 띠할리나

222차: 이태리, 메주고리예 (10박 11일) 2009년 11월 20일 ~ 11월 30일
로마, 란치아노, 산조반니로돈도, 메주고리예, 슈르만치, 띠할리나

서울 마리아 센터

☎ (02) 723-5425 / FAX : 02-3255645

홈페이지: www.seoulmariacenter.com /

e-mail: bosco63@hanmail.com

- * 2009년 파티마 발현 92주년 기념, 루르드, 로마, 메주고리예
10월 11일 ~ 10월 26일 (15박 16일)
- * 이태리와 발칸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메주고리예)
10월 18일 ~ 10월 31일 (13박 14일)
- * 이태리, 메주고리예 10월 21일 ~ 10월 31일 (10박 11일)
- * 루르드, 메주고리예 10월 25일 ~ 11월 5일 (11박 12일)



진주여행사

☎ (02)738-0747(代) / FAX.(02) 738-0769

www.jjtravel.co.kr / e-mail: master@jjtravel.co.kr

- * 이태리, 메주고리예 (11일 간) 10월 21일 ~ 10월 31일
- * 파티마, 루르드, 스페인 (아빌라, 부르고스, 산티아고 데 꼴쁘스텔라, 로욜라),
이태리, 메주고리예 (16일간) 10월 16일 ~ 10월 31일
- * 이태리, 메주고리예 (11일간) 11월 18일 ~ 11월 28일
- * 루르드, 파리, 로마, 아씨시, 란치아노, 산조반니로돈도,
메주고리예 (14일간) 11월 20일 ~ 12월 3일

순례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각 여행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양희, 강재복, 곽복화, 권금옥, 권효정, 권희성, 김건일, 김금성,
김마데라, 김명숙, 김명희, 김복례, 김복선, 김세록, 김주희, 김수연,
김아네스, 김안나, 김영서, 김영옥, 김유경, 김원희, 김재자, 김정선,
김주희, 김지은, 김혜숙, 김호영, 김효정, 김춘자, 김태희, 남순자, 노종만,
문방자, 민병돈, 민정숙, 민혜레나, 박병칠, 박선영, 박숙진, 박영실, 박영희,
박정자, 박청희, 박프란체스카, 박혜영, 배, 백낙현, 백안셀모, 서정열, 서지희,
송데레사, 신베드로, 신순덕, 신요안나, 신태경, 심시몬, 안연숙, 엄봉화, 엄토마스,
오글로리아, 오미카엘, 우송지, 유종애, 유막달레나, 윤군순, 윤소화데레사,
윤요셉, 윤현옥, 임가경, 임주자, 임효경, 이글라라, 이동우, 이명진, 이봉주,
이선이, 이순세, 이순자, 이선희, 이윤용, 이영분, 이은경, 이인순, 이재열,
이주상, 이현로, 이현숙, 장영아, 전신혜, 전스미자, 전종례, 전현숙, 정명좌,
정성민, 정윤도, 조동진, 조모니카, 조성희, 조은자, 주정숙, 진도미니카,
지니김, 지현남, 차세실리아, 최도경, 최미카엘라, 최명숙, 최선영, 팽정숙,
한경열, 한영옥, 한정선, 황계자, 황의진, 황혜정, 허안나, 홍옥선, 익명,
뱅쿠버 성김대건 본당 평화의 기도회회원과 레지오단원

Yoon Lee, Myoug Spence, Young Choe, Tak Lee, Dave Burger,
Cynthia Ziegmann, Mary K. Lee, Helena, Henry Yerger, Eileen Cho,
Trettel Yun, Liga Rigoni, Lim, Soon, Mary Lamb, Insuk Mullins,
Anna Cho, Hyun, Enami, Jennifer Han

성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는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시는 회원님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분들은 주소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
소식지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하여 회원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소식지가 반송되지 않도록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꼭 선교회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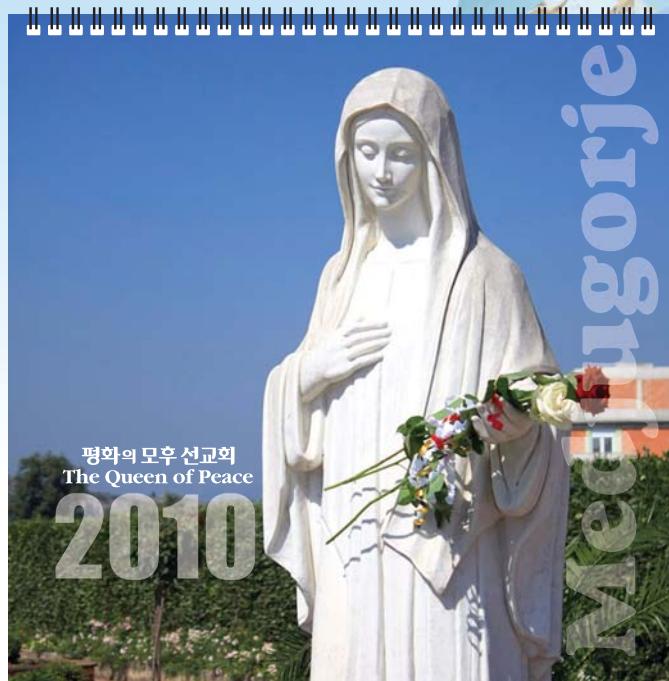
지난호 후원금	\$11,088.00
지출 :	
평화의 모후 소식지	
후원회원봉투 인쇄	
통신비, 교통비,	
사무용품	\$13,650.00
잔액	- \$ 2,562.00



참된 애덕은 남의 결점을 모두 참아 견디며,
그들의 악함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들이 행하는 극히 조그만 덕행까지도
본보기로 삼는 데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은 마음속 깊이 가두어
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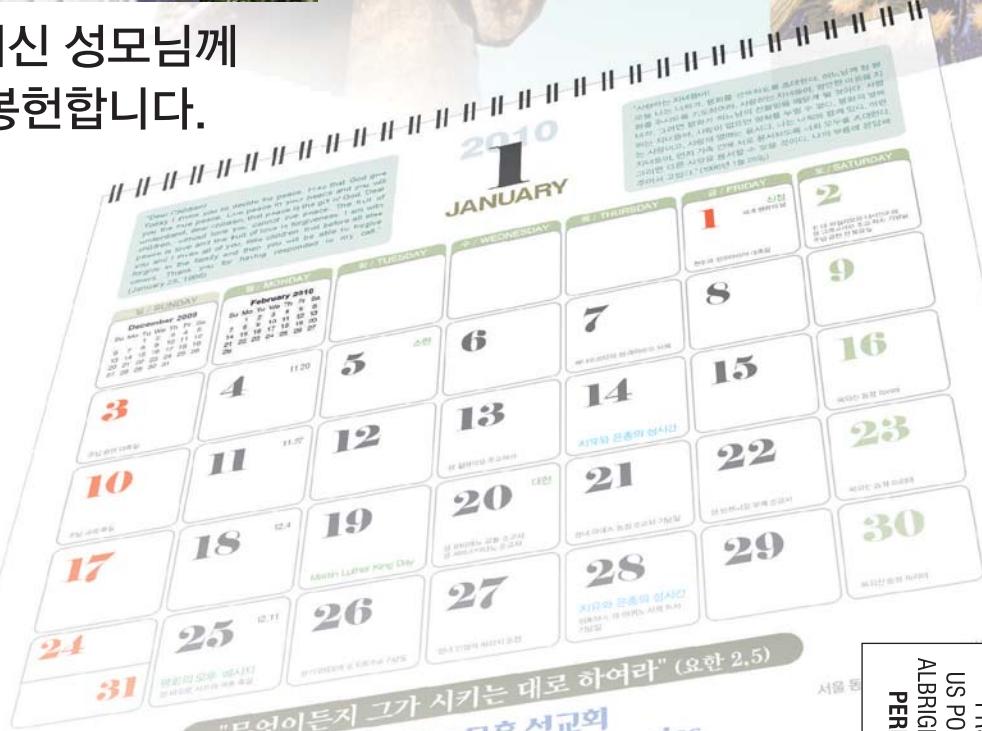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기도, 기도, 기도하여라.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저희 가정을 봉헌합니다.

Queen of Peace Missionaries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Return Address Service Requested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2,5)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ies
www.qpmm.org

미국 본부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PRSR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4
서울 동
E-mail :